2022 경기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원사업
심의 총평

2022 경기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신 모든 예술가와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경기센터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과 도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다각도의 변화를 모색하였습니다.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을 위해 지원 대상을 경기도 소재 단체로 제한하고, 예술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강사비를 상향하고 수업준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모사업별 외부전문가 심의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분야별 심의위원을 3배수로 추천하고 우선섭외 대상순서에 의하여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총 245건의 공모지원서가 접수되었으며, 최종 51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난생처음 꿈·지> 62건, <신박한 실험과 도전> 38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97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48건 신청하여, 평균 경쟁률이 5.1:1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센터는 올해 공모지원사업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 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당 분야별 심의 총평을 알려드립니다.

2022 경기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원사업
[난생처음 꿈·지] 심의 총평

본 지원 트랙에서는 시작하는 단체로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분명하고 솔직한지, 문화예술교육으로의 진입에서 단체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중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단체들의 발견으로 설렘을 느끼기도 했지만, 아직 기존의 도구적 문화예술교육의 한계에 머무르는 기획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행정과 제도의 경직됨이 만든 결과인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현장을 지지하는 이와 같은 트랙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생태계의 말랑말랑함이 회복되길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심의 과정을 통해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단체, 다른 장르에 대한 궁금증과 네트워킹에 대한 목마름, 특히 힘겨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지금, 동료 그룹을 만들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동시에 미숙할 지라도 처음의 출발을 지원하는 우호적 지원 사업에 대한 단체들의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선정 후 경기센터에서 주관하는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22. 4. 15.

심의위원 김태황 서울예술교육센터 A14s 디렉터
박도빈 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 대표
강득주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매니저

2022 경기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원사업
[신박한 실험과 도전] 심의 총평

최근 경험한 어떤 사업과 비교하더라도 예술철학의 깊이, 교육 방법론에 대한 고민, 새로운 시도에 대한 아이디어가 모두 훌륭한 신청 팀들이 많았습니다. 최초에 7팀을 인터뷰할 예정이었지만, 우수한 팀이 많아 10팀에 대해 인터뷰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꿈다락, 지특 등)에 참여하지 않던, 지역에서 꾸준한 활동을 지속해오시던 은둔고수(?)분들이 대거 사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때문에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덜 구조화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실험적인 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설계해 나가야겠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획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할 때 지원에 적합한 지원자의 숫자가 예산상 책정된 팀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때문에 충분한 완성도를 갖춘 신청단체들의 지원서 중에 일부를 선정해야만 했고, 어떤 사업이 더 사업의 지향 – 예술교육의 새로운 실험과 동시대 이슈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가? – 을 바탕으로 긴 논의를 거쳤습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팀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실험해보자 하는 경우를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실험에서 꼭 '새로움'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제에 대한 고민과 경험의 축적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면, 실행과정에서 충분히 '새로운 지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긴 논의과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뉴미디어(NFT, 메타버스 등)에 대한 프로젝트가 한 건도 선정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흥미로운 기획들이 많았지만, 참여자 경험에 대한 상상 혹은 시뮬레이션이 다른 주제의 사업들에 비해 촘촘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리고, 훌륭한 기획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 사업에서 함께 할 수 없게 된 신청팀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더 흥미로운 사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2. 4. 15.

심의위원 이초영 별일사무소 대표
김지영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공동대표
주성진 문화용역 대표

2022 경기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원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심의 총평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전반적으로 예술적 역량과 예술적 경험이 보다 깊이 고민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예술이 단순 체험을 위한 매체, 도구로 활용되는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예술적 고민이 보다 깊이 녹아난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방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술 활용 프로그램의 경우엔 기술적 테크닉 학습에 매몰되어 예술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환경문제와 관련한 재활용 재료 활용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예술적 경험의 깊이를 고민하지 못하는 유형이 많았습니다.

어떤 소재,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참여자가 예술의 깊이를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술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이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예술교육으로서의 차별성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2022. 4. 15.

심의위원 손혜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강사
김재순 유스보이스 대표
양혜정 연극놀이 전문가

2022 경기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심의 총평

지역의 이슈(갈등, 개발, 소외 및 차별 등) 관련 주제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기획한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슈는 바라보는 단체의 관점이 모호하거나 일방적인 경우가 많았고 단순히 문화예술활동을 하거나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접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육 참여자인 주민은 그 방식을 해내야하는 입장으로 배치되기도 했는데 예술이나 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이나 가치가 보다 다층적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예술의 선한 영향력, 긍정적 기운 회복 등만을 중심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생활문화 활동,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활동, 지역스토리 아카이빙 등이 주요활동으로 제시되었는데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문화예술교육과의 연결 필요성은 고민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공간을 중심으로 활동으로 활동을 연결하는 사업의 경우, 그 맥락이 지역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공간이나 사람을 단지 자원으로 연결하기 보다는 그래야 하는 필요성과 장기적 방향성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의 여러 지역에서 주민간의 갈등과 도시개발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본 사업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단체들의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예술과 예술교육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 혹은 실험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별 문제의식이 자유로운 시도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사업 연계도 고민되기를 바랍니다.

2022. 4. 15.

심의위원 김지연 프락시스 대표
민운기 스페이스빔 대표
최선영 유구리최실장 대표